

포교 전문화-세분화 시급

東大 불문研 세미나 '고학력시대 불교의 진로'

고학력자의 불교신도 비율이 기독교(개신교+천주교)에 비해 세 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번 결집조사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학력 지성인 집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포교대책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불교신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김용표 교수는 "한국의 고학력층이 기독교에 편중되고 있음은 기독교가 서구의 신문명과 동일시 되고, 불교는 민속 신앙의 한 유형으로 비취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종교적 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정

도는 고학력층이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국불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개발에 노력한다면 고학력 불자 배양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는 학력별 종교성향은 학력별 특성에 따른 포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대졸 무종교자와 서구 종교의 한계에 직면한 젊은 지성층의 불교성향을 인식, 이들에 대한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기중 교수 "기복벗어나 교리 근거 전범"
- 목정배 교수 "사찰을 茶談 대화의 장으로"
- 법산 스님 "법회의식 한글화·대중화"

김교수는 "조사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고학력층에 대한 믿음이 깊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학력층에 비해 '가슴의 종교성'을 나타낸다면 고학력층은 '머리의 종교성'을 보여 주고 있기에 기복에 치우친 한국불교의 방향성정확과 계층에 맞는 포교의 전문화·세분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자료가 보여

권기중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역시 "고학력시대를 불교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의 기복적, 비논리적 포교방식 보다는 불교이론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교수는 기복적 의식(儀式) 등 한국불교의 구태연한 관습을 지적하며 "이제는 일방적 주입과 추종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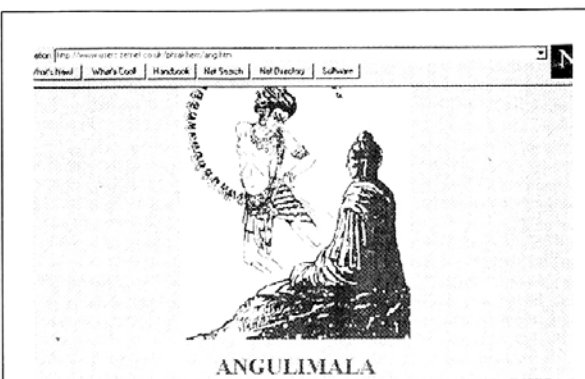
불자들의 신생활을 이끌 수 없는 만큼 이성과 지성이 전제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고학력자를 위한 불교 교육방안"과 관련, "고학력 지성인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투영시킴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찰을 다담대화(茶談對話)의 장으로 개방 △도심 포교당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목교수는 "지식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불교의 무애재관을 통해 재창출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고학력시대의 불교의식과 수행"에서 "의식은 현대화·한글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는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식의 개선점으로는 △한글 법요집의 활용 △대중적 법회의식 △의식 교육 등을 지적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봉축기념으로 마련하는 '고학력시대 불교의 진로' 주제 세미나는 23일 오후 1시30분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되며 서우길(동국대 불교학부)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 공명원씨(조선일보 논설위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정은 기자



ANGULIMALA

부담없이 사이버 기행

앵굴리마라

'앵굴리마라' (<http://www.users.zelnet.co.uk/phrakhem/angul.htm>)는 영국불교계의 대표적 인물인 교도소 법당기구로 지난 14년간 죄수들이 부처님 정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포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돕고 있다. 1985년 2월에 설립되어 영국에서 교도소 봉사에 관한 불교계의 공식적인 대표기관으로 인정받은 앵굴리마라 사이트는 △구속교도소(Her Majesty Prisons)내 불교의 가르침이나

아 목걸이를 만들어 돌아오면 법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앵굴리마라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백99명을 죽이고 자신의 부모마저 죽이려다가 부처님을 만나 정법에 귀의했다. 70년대 후반 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뒤 교도소 교화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온 아잔 케마다모(Ajahn Khemadhammo) 스님은 앵굴리마라처럼 교도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야 한다는 뜻에서 단체이름을 '앵굴리마라'라고 했다. 현재 이 단체는 서구 불교도우의회(회장 상가라크쉬타), 파산티다마사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영국 교도소 법당기구 14년간 부처님정법 전달 죄수들에 참회의 삶 심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교도소내 불교포교사나 카운셀러 교육 프로그램 △석방된 죄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갱생(更生)지도와 조연 서비스 △불교자문단 활동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앵굴리마라'는 팔리경전에 등장하는 바라문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후 부처님을 만나 귀의한 인물이다. 스승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앵굴리마라가 유혹을 거절하자, 스승의 아내가 '앵굴리마라가 유혹했다'며 모함했다. 스승은 아내의 모함을 믿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천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 천 개를 모

다. 현재 앵굴리마라 회원들은 △불교경전·시간·금전의 보시 △죄수들과의 편팔 친구로서의 활동 △죄수 교화 관련 저술 활동 △교도소의 죄수 방문 △죄수들의 출옥후 지속적인 갱생지도에 대한 도움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봉사활동 체험담과 앵굴리마라 회원 의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재소자들은 불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 앵굴리마라에서는 불교통신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강의테이프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영국 스프링필드 교도소 내의 불상.

전생퇴행요법 첫 '공개 워크숍'

신경정신과의 12명 참석 "임상연구 분야일본"

지난 96년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정신세계사)이란 책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 의화전쟁을 불러일으켰던 '전생퇴행요법'에 대한 공개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 분석 및 임상심리학회 면회화'(가칭)는 11~12일 신경정신과 등 전문의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전생퇴행요법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학회의 공개활동은 '전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인 연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임상심리학회 면회화'는 96년 8월19일 연구 모임이 결성됐으나 공개 워크숍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김영우박사는 강의를 통해 '전생퇴행요법을 환자의 현재증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출생이전의 전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생의 경험과 기억속에서 찾아 해결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했다.

김박사는 "전생요법은 불교등 특정종교의 견해를 뒷받침하거나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임상연구분야"라고 강조했다.

(재)

'이동인스님 자료집'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불자모임 발간 준비

조선말 개화승 이동인(李東仁)스님(생몰연대 미상)의 사상과 삶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자료집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불자모임 '심월회(지도법사 조정봉)'는 오는 6월 서울 신촌 봉원사에 이동인스님의 동상건립과 함께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인 스님은 1879년 개화사상이 대두될 당시 서재필 등과 함께 활동했으나, 그동안 출생연대나 업적등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 자료가 없어 올바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동인스님 자료집>은 방송작가 신봉승씨 등으로부터 고증을 받을 계획이다.

"美 건국이념·헌법정신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

써먼교수 신작 '내면의 혁명' 서 지적



◇써먼교수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인' 중의 한 명인 로버트 써먼교수(콜롬비아대)가 "미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발간된 <내면의 혁명(Inner Revolution)>(美 Putnam Pub Group刊)에서 이같이 지적한 써먼교수는 "미국 시민혁명 사상은 △부(副)의 재분배 △실용주의 △지방분권 △사회·개인의 유연한 교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상은 개인, 비폭력, 교육, 사회, 복지를 중요하게 다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써먼교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불교사상이며, 이것은 미국인이 위대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최초로 수계를 받은 미국인으로 널리 알려진 써먼교수는 티벳-인도학을 전공하며 <티벳의 철학> <티벳 사자의 서> <티벳불교> 등을 저술·번역한 국제적인 학자.

대만 사회안정 법회 봉행

티벳서 부처님 치아사리 봉송 안치

대만 정부는 티벳에서 모셔온 부처님 치아사리가 도착한 11일 사회의 안정을 기원하는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다. 2인어 대만 불교신도가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 부통령 리엔 찬(連戰)은 "부처님 치아사리는 대만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평화로 이끌고 자비와 이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치아사리는 티벳의 린포체 쿤가 돌제(Kunga Dorje)가 대만 정부에게 선물한 것으로 사리를 운반·안치한 성운스님(불광사)은 "현존 치아사리는 3~4개로 알려졌지만 세계에는 더 많은 수의 치아사리가 봉안됐다"며 "치아사리의 진위를 따지는 자체가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했다.

학술단신

'현대사회와 불교' 특강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권기중)은 5월2일 오후 2시 동국대 90주년학술기념관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공개특강을 갖는다. (02)260-3727

'사찰조경연구' 5집 나와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최근 <사찰조경연구> 5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세미나 발표논문 △사찰의 연지(蓮池)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에 대하여 등 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불교연구' 15집 발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대승불교윤리의 조명(허남결·동국대) 등 6편의 논문과 작년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논문 4편을 수록한 <불교연구> 제15집을 발간했다.

'유식학' 등 수강생 모집

대승불교연구원(원장 오형근)은 '유식학 개론'과 '불교학 개론'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02)264-7120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如初 金膺顯先生 古稀紀念 書集 全四卷 !!

書道大字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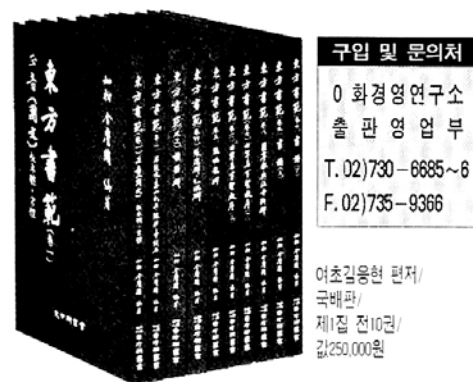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 書藝의 敎本 書學의 必須 字典



주 문: 722-0861~3

正統 書藝의 研究에!! 格調 높은 글씨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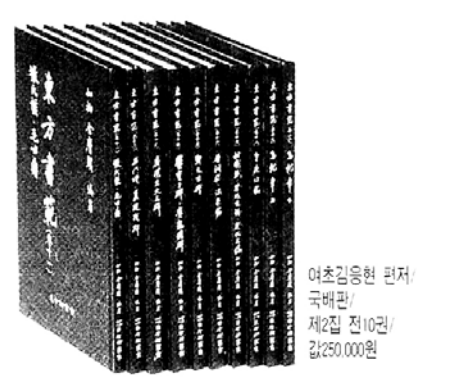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先生의 體本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집(1권~10권의 내용)

- 第一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二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三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四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五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六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七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八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九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東方書範 (2집)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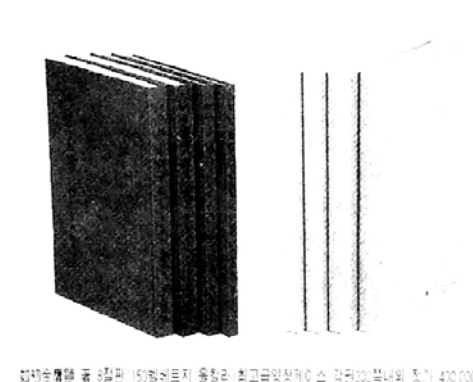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도대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 第十一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二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三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四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五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六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七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八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十九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 第二十卷 正體 國文 本體 體範

如初 金膺顯手墨



詩·書에 묻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筆墨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완벽한 作品解説! 울림으로 印刷하여 作品의 生動함을 한층 높였고 大規模 作品인도 數十點에 달해 國內 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주 문: 722-0861~3

- 1冊 天 筆 51년 간 筆墨의 精華를 凝縮한 名筆
- 2冊 地 筆 95년 간 筆墨의 精華를 凝縮한 名筆
- 3冊 人 筆 道가 氣를 貫한 草書 名筆
- 4冊 天 筆 51년 간 筆墨의 精華를 凝縮한 名筆